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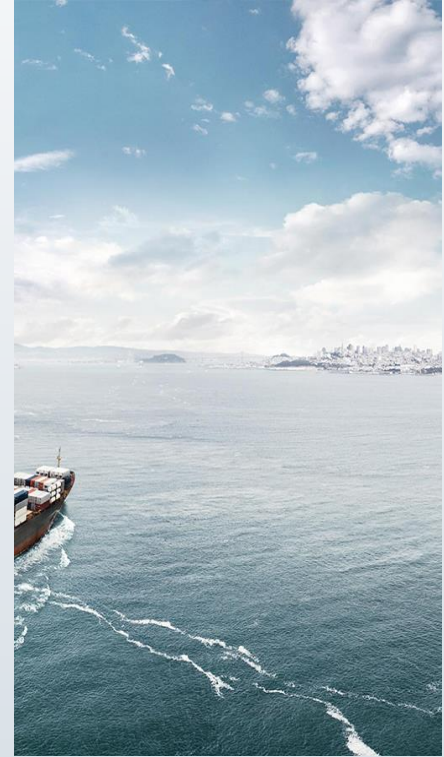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11

July 26,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7
Tankers	11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Issue & Trend	21
Contact Details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러 폭격에도 곡물수출 합의 유지...우크라 "금주 수출 시작"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가 러시아의 항만 폭격으로 결렬 위기에 처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르면 금주 첫 선적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25 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유엔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세계 식량난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첫 선적은 이달 27 일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프라부 관계자가 덧붙였다.

쿠브라코우 장관은 "향후 2 주 내 정해진 항구 3 곳(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 모두에서 곡물 수출 준비가 끝날 수 있다"면서 "내부 서류에 대한 합의가 금명간 완료되고 (이스탄불의) 공동 조정센터가 27 일부터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곡물뿐만 아니라 비료의 수출입까지도 가능하고, 곡물의 수출량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해 상선 출항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기술선이 항로를 따라 먼저 항해를 할 예정으로, 곡물을 실은 선박은 우크라이나의 구조선과 동행하게 된다.

지뢰 제거 작업은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항로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쿠브라코우 장관은 밝혔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항만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항만에 있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브라코우 장관은 "우리 농부들이 내년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수입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농업 전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흑해를 통한 수출이 재개될 경우 한 달에 최소 10 억달러(약 1 조 3 천억원)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타스 통신은 튀르키예(터키) 제독이 이스탄불에 설치될 공동 조정센터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I . NEWS

센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에서 파견된 인력 총 20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가 보낼 군인의 직급은 영관급으로 정해졌다.

이들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은 각기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대면하게 된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와 지난 22 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흑해에 안전 항로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곡물과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튿날인 23 일 곡물 수출항 중 한 곳인 오데사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서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오데사항의 군함과 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혔고, 이어 크렘린궁도 "순전히 군사 인프라와 연관된 것으로 곡물 합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2. 발전 5 사 항만관리 '무방비'

국회 구자근 의원은 5 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 개 발전사로부터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해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 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조차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입기록이 공항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밀입국·밀항 등

## I . NEWS

보안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보안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항만은 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밀수, 밀입국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항만을 통해 입국심사나 상륙허가 없이 항만 관할구역을 넘어 육지로 이탈해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 선원만 162 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부두를 이용한 마약단속 건수는 2019년 90건, 2020년 173건, 2021년 412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 3월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를 통한 베트남인 밀입국, 불법 총기류 밀반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안 1등급시설인 4대 항만(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역시 출입이력 기록이 없고 증명도 불가능해 '보안사고 발생자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항만법상 보안관리주체인 발전사 역시 잘못된 보안관리로 인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발전소는 석탄하역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항만시설 소유 및 운영에 따른 보안점검 및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책임 또한 전적으로 발전사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사는 보안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방기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보안시설 정보화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으로부터의 사고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 기반시설인 발전소 내 부두는 밀입국, 마약밀수의 통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 목표물이 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비인력의 육안확인에 의존하는 부두 보안관리 수준으로는 보안사고 예방과 대처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부두를 직접 관리하는 발전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보안관리체계와 제반 여건을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I . NEWS

### 3. 美·中 갈등에 우크라 전쟁까지..."韓 공급망 위기, 정책으로 대응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정교한 산업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발간한 '러·우크라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변화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팬데믹 등이 발생하며 공급망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공급망 압박은 기업의 재고, 생산,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 발생한 러·우크라 전쟁으로 양국의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무역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만으로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러·우크라 전쟁, 공급망 출발점 '자원 분야'에서 단절 일으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각 산업 공급망의 출발점인 자원 분야에서 공급망 단절 요소를 발생시켜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20%, 석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팔라듐, 니켈, 우라늄, 티타늄 스펀지, 아르곤·네온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활성가스의 주요 생산국이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의존도가 높지는 않으나 유럽의 석유·가스 수입 타격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전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향후 전 세계 경제에서 자원의 안정적 획득과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운 공급망 재편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획득과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럽만큼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화석 연료 전반의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다각화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서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완제품 가격 상승과 향후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 I . NEWS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핵심 자원이 '전략무기화'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소재의 경우 전쟁을 넘어 미·중 대립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일단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논리에 의거해 글로벌 경제의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2021년 기준으로 가스 수입의 36%, 석탄 수입의 30%, 원유 수입의 10%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획득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전개 시나리오 수립해야"

보고서는 또한 러·우크라 전쟁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진영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면서 향후 경제 정책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경제안보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들은 안보 논리를 앞세운 자국 산업 육성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에너지, 핵심 광물·소재 등에 관한 국내 생산 증대, 러시아·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제협력 채널을 가동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내외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 경제의 상황에 부합하고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산업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일단 화석연료 사용 증대 등으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의존도 탈피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만큼 이를 고도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희토류 등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관련 공급망의 전반적인 정비와 통제를 강화하는 '두 개의 시장, 두 개의 자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국제적인 자원·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로 과감한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을 위해 '청정에너지전략'을 마련 중이다.

## I . NEWS

---

보고서는 "현재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지정 등 과학기술 5 대 강국 도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정교한 산업정책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공급망 재편 시 주요 품목 업체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며 "글로벌 자원 공급망 교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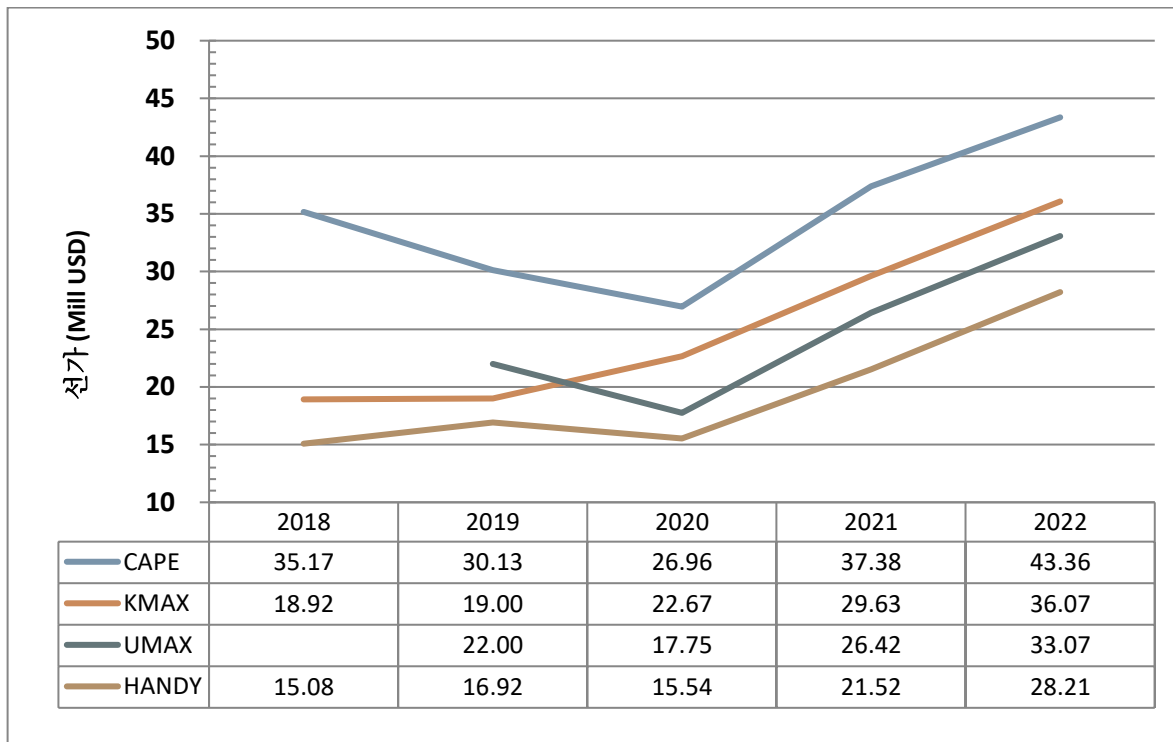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3.36
	11.20%	-14.34%	-10.51%	38.64%	16.01%
Kamsarmax 82K 76K (~2019)	18.92	19.00	22.67	29.63	36.07
	6.82%	0.42%	19.30%	30.70%	21.74%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3.07
			-19.32%	48.83%	25.19%
SMAX 58K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32K (~2018)	15.08	16.92	15.54	21.52	28.21
	9.37%	12.18%	-8.13%	38.47%	31.10%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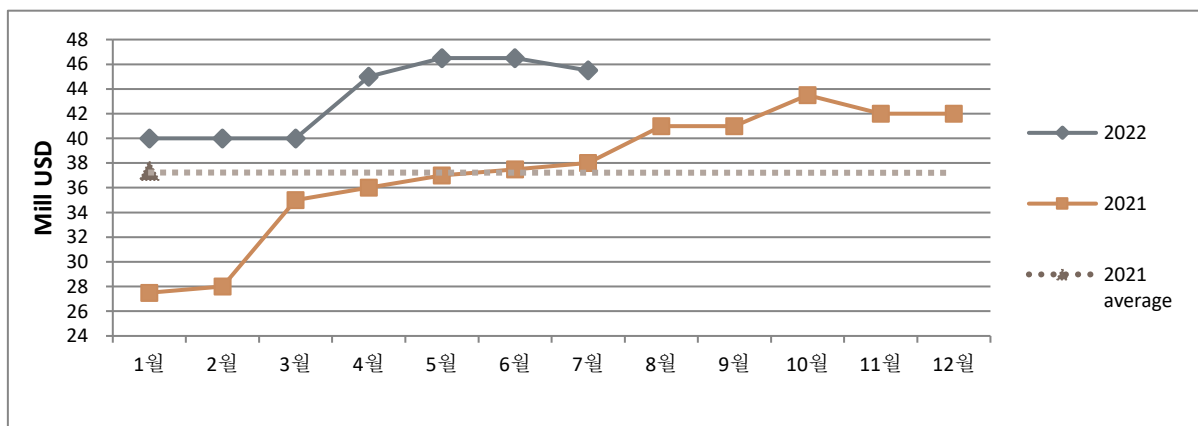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6.50	46.50	45.50	43.36
	전월대비	-4.8%	0.0%	0.0%	12.5%	0.0%	3.3%	-2.2%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24.0%	25.7%	19.7%	16.0%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6.07
	전월대비	3.0%	1.5%	2.9%	2.8%	0.0%	4.1%	-5.3%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28.8%	35.7%	18.0%	21.8%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4.50	34.00	33.00	33.07
	전월대비	1.7%	6.6%	1.5%	3.0%	1.5%	0.0%	-4.3%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30.2%	41.7%	15.8%	25.2%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8.21
	전월대비	7.8%	1.8%	0.0%	1.8%	0.0%	0.0%	0.0%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9.0%	42.5%	26.7%	31.1%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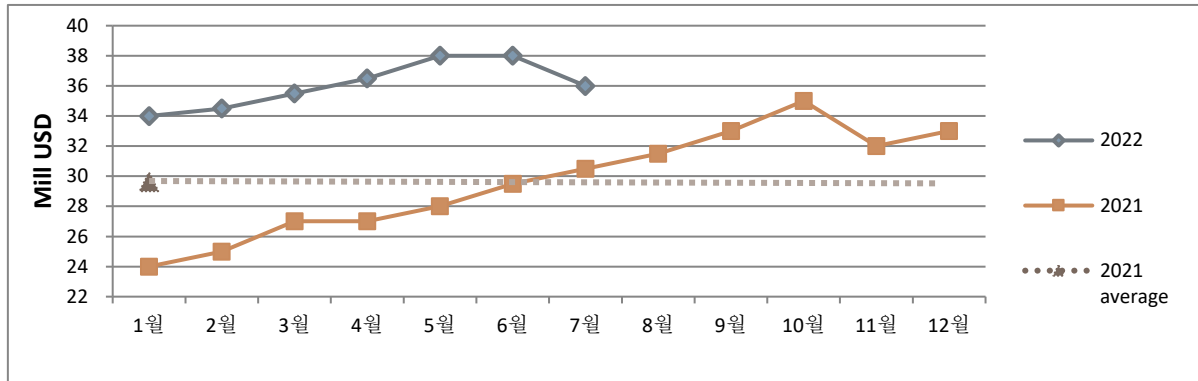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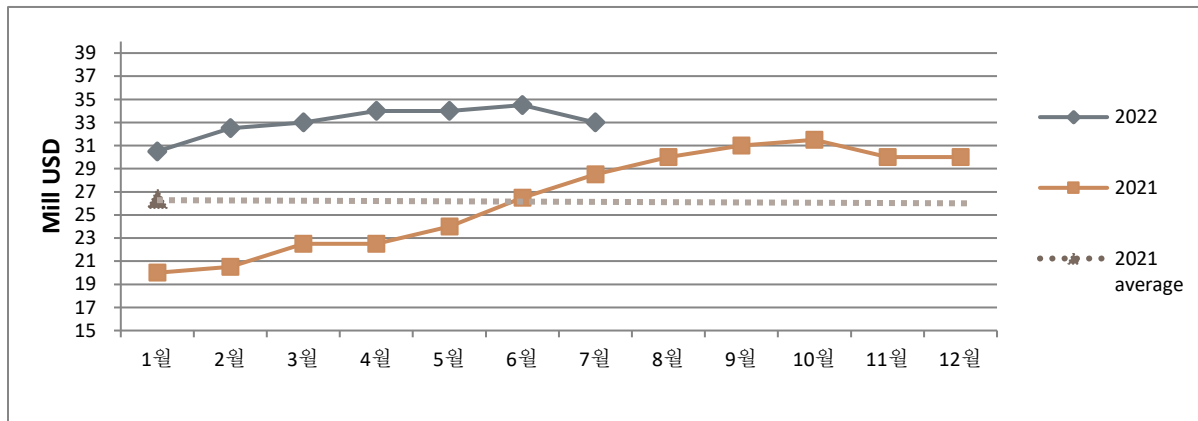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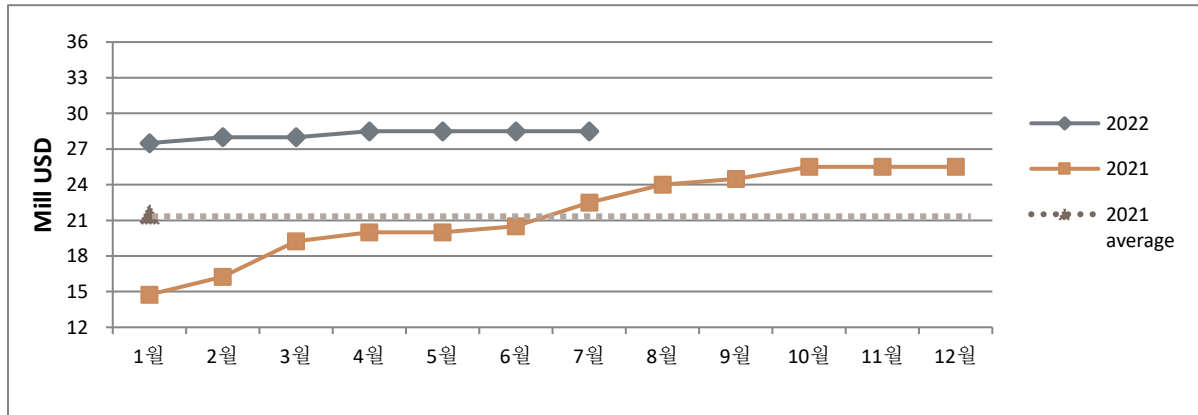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DAYANG CONFIDENCE	63,121	2017	CHINA	B&W	C 4x36t	30	Undisclosed buyer, CO2 fitted, Eco
BC	SOHO MANDATE	61,000	2016	CHINA	B&W	C 4x30t	31	Chinese buyer, Eco
BC	SHUN XIN	56,933	2010	CHINA	B&W	C 4x30t	16.8	Undisclosed buyer
BC	OREO	55,430	2008	JAPAN	B&W	C 4x30.5t	19.4	Greek buyer
BC	JUN DE	34,420	2011	KOREA	B&W	C 4x35t	17	Chinese buyer
BC	ALTHEA	24,999	1999	JAPAN	B&W	C 3x30.5t	8.1	Turkish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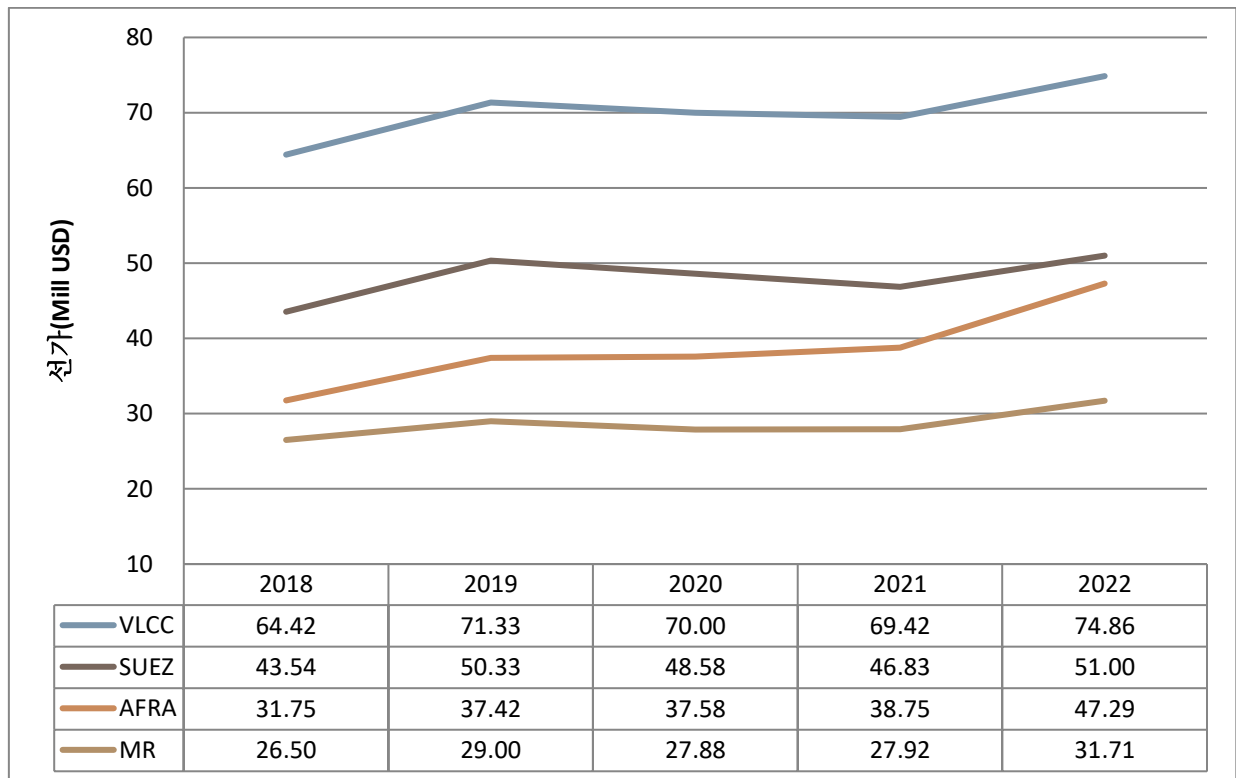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4.86
	2.11%	10.73%	-1.87%	-0.83%	7.84%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51.00
	5.45%	15.60%	-3.48%	-3.60%	8.90%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47.29
	4.81%	17.85%	0.45%	3.10%	22.03%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6.50	29.00	27.88	27.92	31.71
	11.38%	9.43%	-3.88%	-0.15%	13.60%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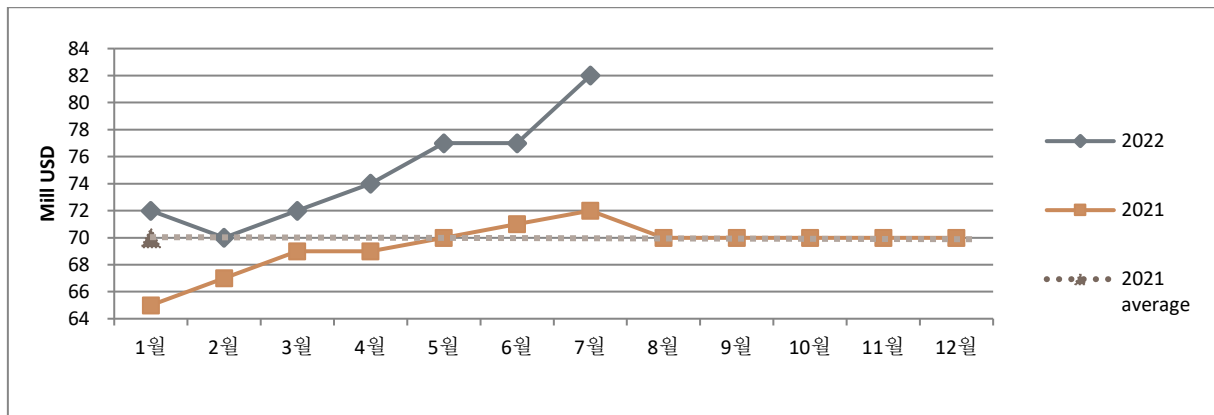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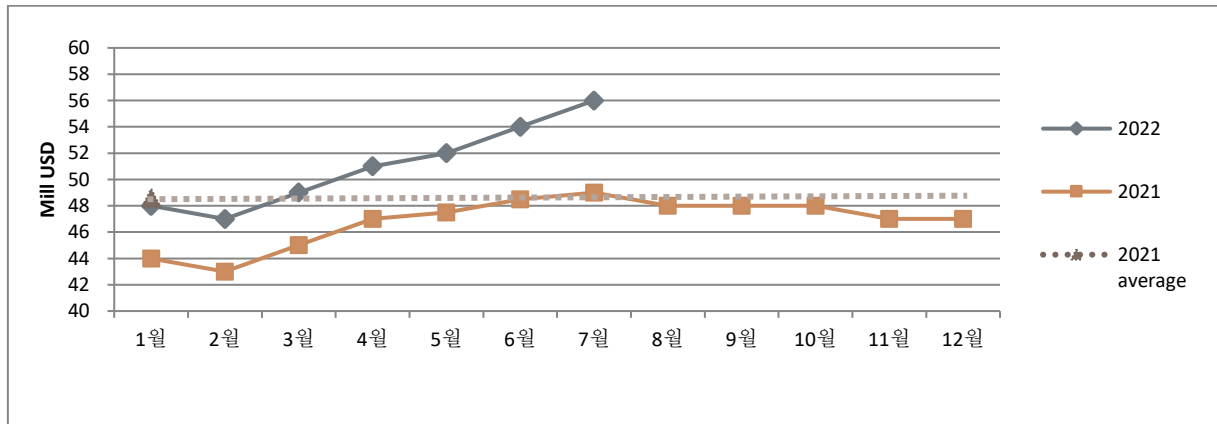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2.00	74.86
	전월대비	2.9%	-2.8%	2.9%	2.8%	4.1%	0.0%	6.5%	-
	전년대비	10.8%	4.5%	4.3%	7.2%	10.0%	8.5%	13.9%	6.9%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6.00	51.00
	전월대비	2.1%	-2.1%	4.3%	4.1%	2.0%	3.8%	3.7%	-
	전년대비	9.1%	9.3%	8.9%	8.5%	9.5%	11.3%	14.3%	5.0%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1.00	47.29
	전월대비	9.8%	0.0%	0.0%	4.4%	4.3%	0.0%	4.1%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2.5%	22.5%	27.5%	25.8%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3.50	31.71
	전월대비	3.4%	0.0%	-3.3%	12.1%	3.1%	0.0%	0.0%	-
	전년대비	9.1%	9.1%	5.5%	18.2%	21.8%	21.8%	19.6%	13.8%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연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1.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8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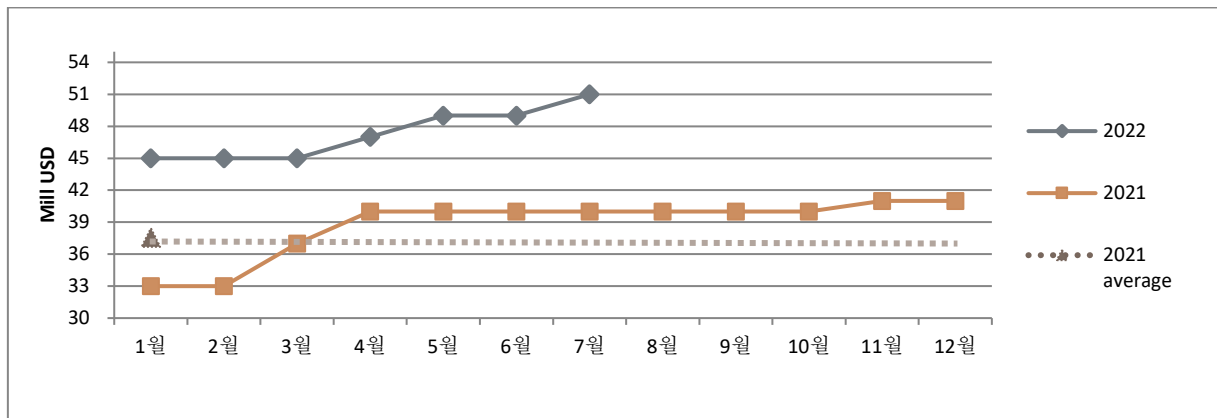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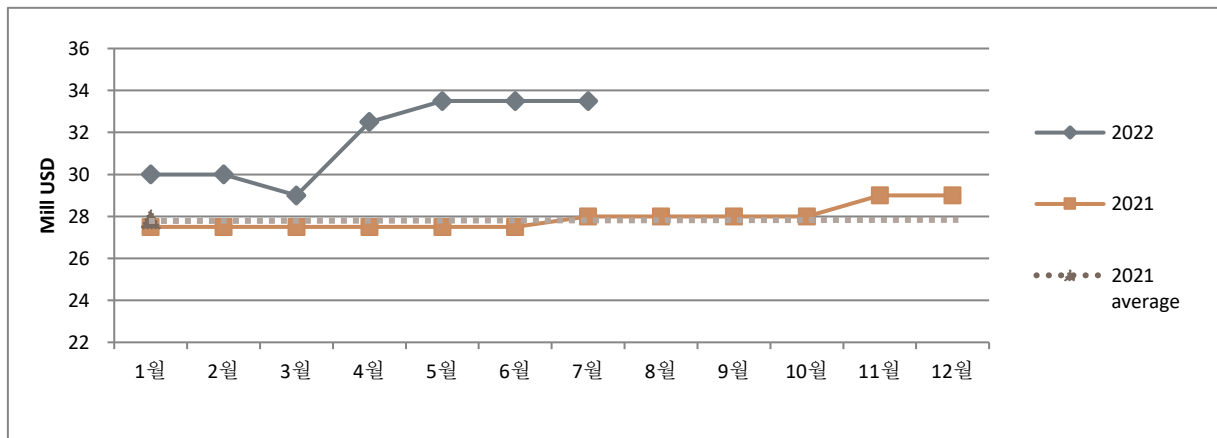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ECO LEADER	299,999	2016	KOREA	B&W		82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DOLVIKEN	158,500	2012	KOREA	B&W		42.5	Swiss buyer (Advantage Tankers), Eco
TANKER	NICHOLAS	115,577	2007	JAPAN	B&W		27.7	Chinese buyer
TANKER	BLUE PRIDE	115,048	2004	KOREA	B&W		23	Undisclosed buyer
TANKER	GODAM	113,782	2006	KOREA	B&W			
TANKER	MANDALA	113,553	2006	KOREA	B&W			
TANKER	TIMBERWOLF	109,647	2008	CHINA	WART		80-4EB	Greek buyer (United Maritime)
TANKER	THUNDERBOLT	108,817	2008	CHINA	B&W			
TANKER	JAG LYALL	110,500	2006	CHINA	B&W		26.2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SONGA CORAL	107,081	2005	JAPAN	B&W		25	Undisclosed buyer
TANKER	BW LARA	73,495	2004	JAPAN	B&W		13	Greek buyer (Chemnav), cap I
OIL/CHEM	SUNNY BAY	50,661	2008	KOREA	B&W	2&3	17.8	Chinese buyer
OIL/CHEM	LARGO SUN	49,990	2016	KOREA	B&W	2	35	Greek buyer
OIL/CHEM	CHALLENGE PHOENIX	47,800	2007	KOREA	B&W		18	Greek buyer
OIL/CHEM	SEAEXPLORER	39,975	2003	KOREA	B&W		9.1	Turkish buyer
OIL/CHEM	ATLANTIC CANYON	36,677	2009	KOREA	B&W	2		
OIL/CHEM	ATLANTIC SYMPHONY	36,684	2009	KOREA	B&W	2	68-4EB	Greek buyer
OIL/CHEM	ATLANTIC SIRIU	36,684	2009	KOREA	B&W	2		
OIL/CHEM	ATLANTIC JUPITER	36,684	2009	KOREA	B&W	2		
CHEMICAL	RHAEO RAPID	13,224	2008	KOREA	B&W	2&3	6.2	Undisclosed buyer



### III. TANKER

####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 ROKU	21,935	2008	JAPAN	B&W	1708	TEU	30	Vietnamese Buyer (Hai An Transport)
CONT	X PRESS YAMUNA	14,086	1998	POLAND	B&W	1162	TEU	--	Middle Easter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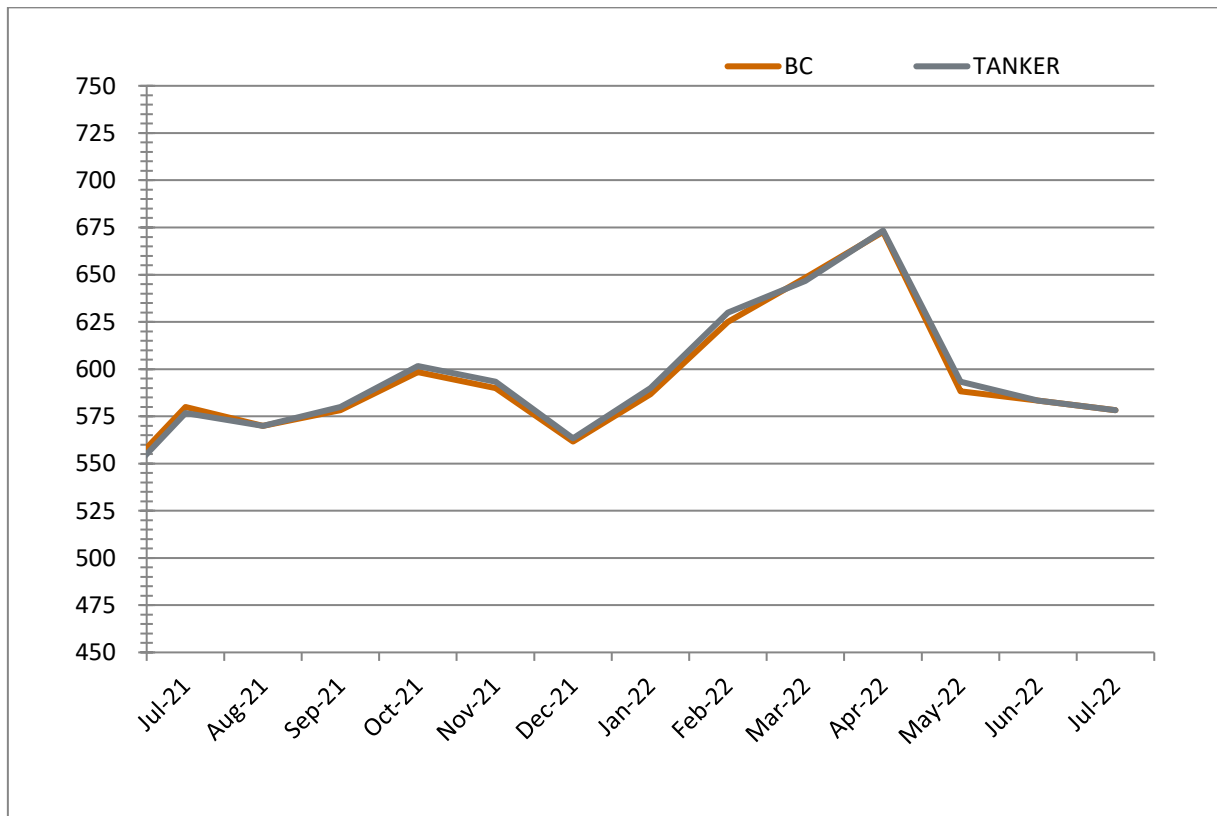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07	2022.07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613.57	16.5%	576.67	578.33	-0.9%	0.3%
BC	344.58	-13.6%	529.17	53.6%	611.81	15.6%	580.00	578.33	-0.9%	-0.3%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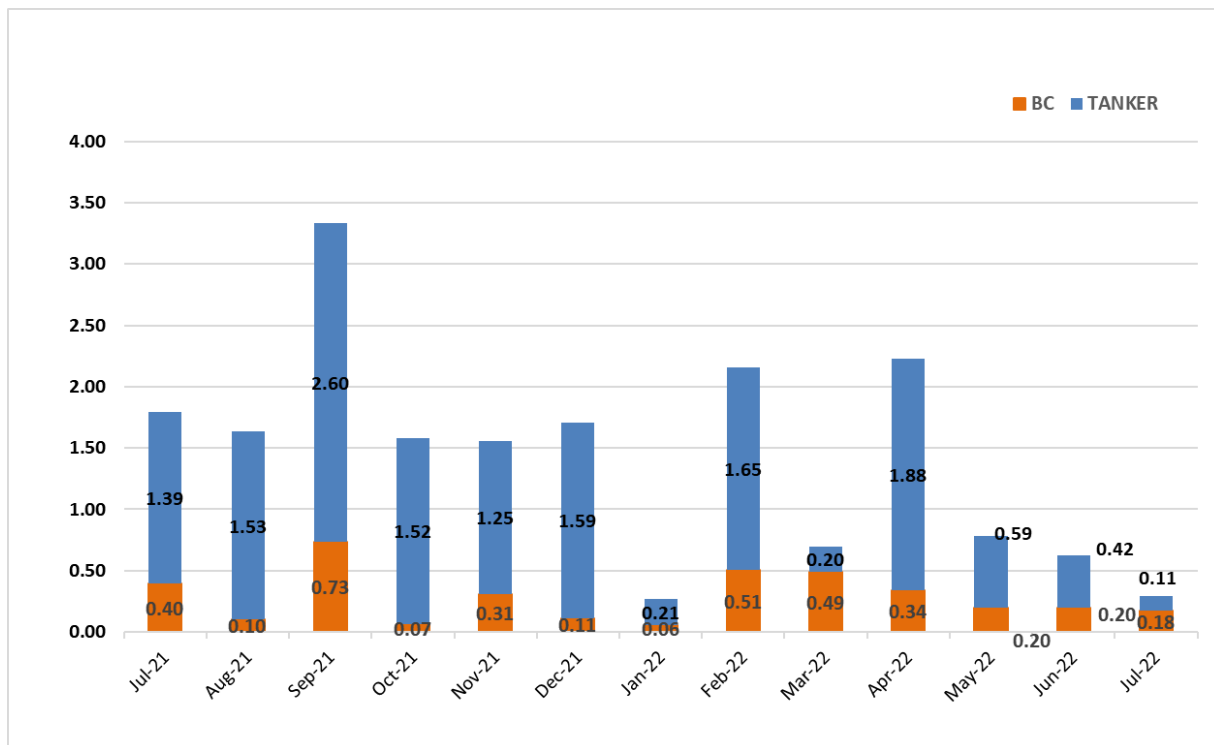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07		2022.07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1.39	30	0.11	-91.8%	3	-90.0%
BC	15.61	164	6.34	123*	0.40	9	0.18	-55.9%	3	-66.7%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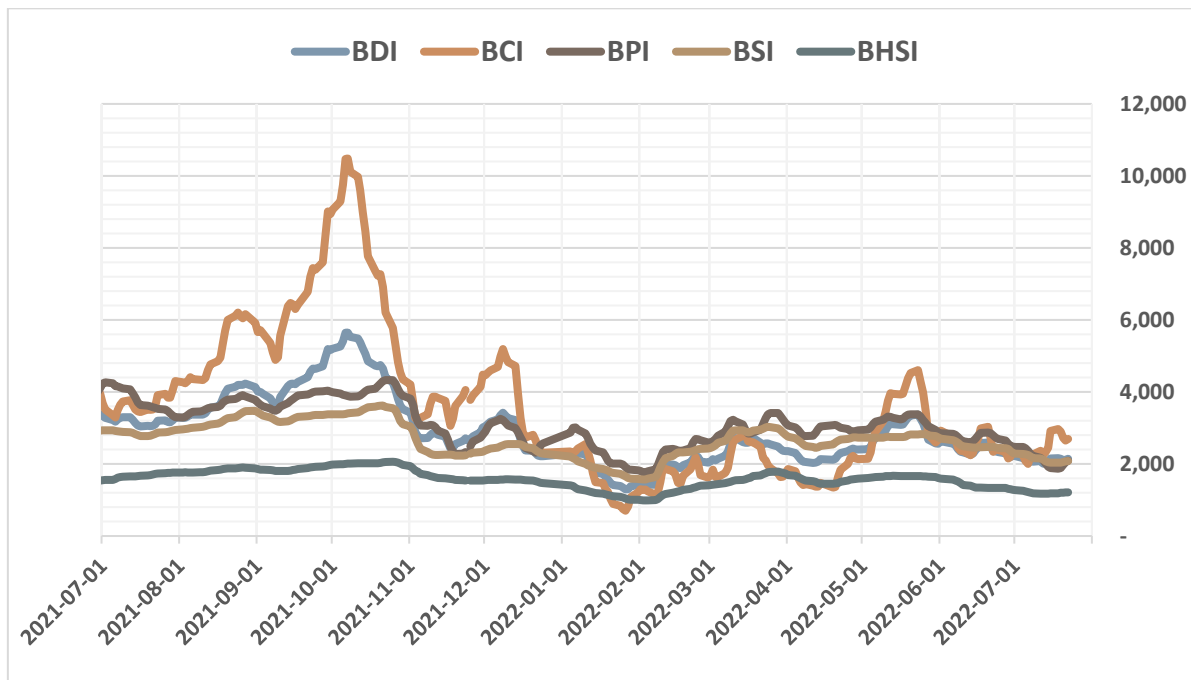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OKRA	171,199	21,018	1999	HONG KONG	B&W	530	--
TANKER	ROWAN	299,988	44,380	2001	JAPAN	B&W	595	BANGLADESH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2-07-22	2022-07-15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146	2,150	▼4.00	5,650	1,296
BCI	2,696	2,919	▼223.00	10,485	702
BPI	2,093	1,885	▲208.00	4,328	1,765
BSI	2,080	2,039	▲41.00	3,624	1,570
BHSI	1,211	1,181	▲30.00	2,062	988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924.50	▼72.50	780.00	▼2.50	836.00	▲33.00
MGO	1042.50	▼49.50	1089.50	▼41.50	1143.00	▼11.50
LSMGO	1040.00	▼53.00	1089.50	▼41.50	-	-
IFO380	479.00	▼34.00	481.00	▲29.50	583.00	▲19.00

❖기준일 : 7 월 22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2-07-22	2022-07-15	CHANGE
미국 달러	1312.10	1310.00	▲2.10
일본 엔(100)	956.17	942.24	▲13.93
유로	1341.69	1312.49	▲29.20
중국 위안	194.01	194.44	▼0.4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TREND

---

### [시사 상식] 유로-달러 패리티

미포머족이란 '나'를 뜻하는 미(ME)와 '정보 제공자'라는 뜻의 인포머(INFORMER)가 합쳐진 말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를 통해 나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미국 러트거스대 연구진이 2009 년 말에 트위터 유저 350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든 신조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0%가량이 미포머에 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나르시시즘(자기애)적 욕구를 채우는 데 SNS 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포머족은 뉴스 등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머(INFORMER)에 대조적인 개념으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는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변잡기의 정보를 알리는 게 특징이다.

미포머족이 SNS 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미포머족을 활용해 브랜드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미포머족이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SNS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인포머족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 처 : 잡코리아]



##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President_ 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b>SnP</b> snp@stlkorea.com	<b>Jack Kim (이사 김종수)</b> Director Tel. 070-7771-6411	<b>Nova Cha (차혜정)</b> Team member Tel. 070-7771-6409	
Address: 101-13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LOBAL		President_ 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b>Chartering</b> biz@stlkorea.com	<b>Sancho Kim (이사 김현진)</b> Director Tel. 070-7771-6404	<b>Mike Hong (부장 홍창목)</b>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b>Fleet Operation</b> biz@stlkorea.com	<b>H.S. Lee (부장 이현성)</b>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b>Research &amp; Operation</b> snp@stlkorea.com	<b>Anna Lee (과장 이혜란)</b> Manager Tel. 070-7771-6403	<b>Joovi Park (대리 박주비)</b>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b>Agency Operation</b> operation@stlkorea.com	<b>Henry S.H.Oh (차장 오수현)</b>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b>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b> Manager Tel. 070-7771-6407	
<b>Ferroalloy Logistics &amp; Warehouse Management</b> ops@stlkorea.com	<b>Jena Ahn (차장 안지영)</b>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b>Joanne Jin (과장 진정식)</b> Manager Tel. 070-7771-6406	
Tel. +82-2-776-0840 (Rep.)   Email. seoul@stlkorea.com   website :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b>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b>  <b>실장 김영하</b>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b>보트/요트 면허취득</b>  <b>실장 이진행</b>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